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Vol.21)

e - 날씨 유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지방기상청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지방기상청

(34142) 383,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_ 아름다운 빛내림(이도은)

CONTENTS

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Vol.21)

WEATHER

04 / 기상청장 기고문1- 기후변화와 가을 태풍
06 / 기상청장 기고문2- 여름 땀방울의 결실, 가을

REPORT

08 /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2 /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6 /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22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23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 행 일 자 2020년 11월 30일
발 행 처 대전지방기상청
편 집 장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준휘(기획운영과), 백은희(예보과), 이영미(관측과), 김현정(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정수(관측과), 김호(예보과), 박민규(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배철호(예보과) 옥순기(관측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상걸(예보과), 이진화(예보과), 정혜진(기후서비스과), 조아라(관측과) 조현겸(관측과), 최유미(기후서비스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4-5

기상청장 기고문 #1

기후변화와 가을 태풍

가을에 올라오는 태풍이 더 무섭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올해 한반도 태풍이 분명 다르다. 작년에는 7개의 영향을 받아서 예년의 태풍과 달랐고, 우리에게 태풍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다르게 했다면, 올해는 태풍의 강도와 영향받은 시기에서 작년과 또 예년과 분명 다르다. 우리나라 태풍의 대부분 매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한두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에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을 지나갔고, 9월이 시작되자마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남해안에 상륙했다가 동해상으로 진출했다. 4일 뒤인 9월 7일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울산에 상륙하여 경북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동해상으로 지나갔다. 이번처럼 매우 강한 태풍이 연속으로 지나간 적은 없었다.

태풍은 해수 온도 27℃ 이상의 바다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혹 온대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적도 부근의 풍부한 열과 수증기가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우리나라로 다가올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포물선을 그리며 이동한다. 여기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 이동 경로를 달리한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279개가 영향을 주었고, 가을철에는 79개가 영향을 주었지만, 가을에 올라오는 태풍이 더 무섭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하지와 추분 사이에 북태평양의 적도 인근에서 태양고도가 높아 매우 강한 일사로 해수온도가 연중 가장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이러한 해수온도가 더 상승하고 지속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 북상하는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가을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은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 1959년 9월에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사라로 인해 8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02년 9월에 영향을 준 태풍 루사는 2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약 5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2003년 9월에 찾아온 태풍 매미는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여름철에 찾아오는 태풍보다 가을철 태풍에 의한 피해가 더 컷기에 아마도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중도일보 〉 [중도시평]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차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면서 가을이나 겨울철에도 태풍이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강력 태풍은 더 많이, 더 자주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올여름 6월 하순부터 시작한 장마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이 되어서야 끝났다. 무려, 한 달 반 동안 장마의 시기를 지나온 것이다. 이러한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긴 장마는 아직도 긴 여운으로 미래의 기후변화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현실임을 자각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낯선 충격은 가장 추워야 할 겨울철인 올해 1월에 역대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한겨울이 없어진 것과 같이, 이미 기후변화의 실제 예를 미리 강하게 경험하였다. 이때는 강원도의 겨울철 레저 활동에 큰 피해가 났으나, 우리와 같은 도심의 일상과 주변에서는 큰 불편과 피해가 적어 그 체감도가 적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기상 현상의 하나인 태풍의 강도나 빈도는 우리가 체감을 넘어 실제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분명 이유가 있고, 당연하다. 이에 기상청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_ (태풍)나리의 흔적(최건석)

6-7

기상청장 기고문 #2

여름 땀방울의 결실, 가을

언제부터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일까?

가을을 뜻하는 한자 '추(秋)'는 태양(火)과 벼(禾)가 합쳐진 글자로, 볕을 쬐어 고개 숙인 벼를 거두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을은 수확의 풍요로움과 함께 선선한 날씨, 높고 푸른 하늘 등 기쁨을 선사하는 계절이다. 이러한 완연한 가을날 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그렇다면 언제부터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일까? 계절과 계절을 구분 짓는 기준이 있을까?

가을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문학, 절기, 기상학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황경 180도의 추분점을 지나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인 9월 22일을 가을로 본다. 절기상으로는 24절기 중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8월 7일을 가을의 시작으로 본다. 기상학적으로는 '일 평균 기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정의하고 있다. 기상학적 기준으로 보면, 가을의 시작은 매년 다르며, 그 시기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자성어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뜻이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맑고 깨끗한 하늘을 상징한다.
천고마비는 원래 '추고새마비(秋高塞馬肥)'로, '가을이 깊어가니 변방의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당나라 시인 두심언(杜審言)의 시에서 나왔다. 이렇듯 풍요로운 계절에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실제로 우리가 가을에 살이 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면 식욕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식욕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음식 섭취 욕구를 자극하는 '섭식중추'와 반대로 음식 섭취 욕구를 차단하는 '포만중추'가 있다. 이 중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포만중추는 기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야 포만중추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데 선선해진 가을에는 포만중추를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을에는 식욕이 자연스레 왕성해지며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은 체내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이를 여러 해 겪어나가며, 우리 몸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부터 몸 안에 지방을 비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중도일보 〉 [중도시평]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 '천고마비'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면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가을을 보내야 한다.
먼저 하루 3회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양이라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점심때의 과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잠들어 있던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
천천히 먹는 습관도 필요하다.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음식물이 침과 잘 섞여 아밀라아제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가 잘되며, 같은 양의 식사라도 더욱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가을은 걷기 좋은 날씨이기에 가까운 거리는 걸으면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일상 속에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면 가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을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계절이다. 우리 몸은 계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체중관리 외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음식 섭취와 꾸준한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체내의 저항력을 키우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모두가 건강한 가을을 보내길 소망한다.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_ 랜즈운(이승건)

DROM is...

The Daejeon Regional Office of Meteorology (DROM) is committed to providing weather information in a prompt and accurate manner, to ensure that people can enjoy a safe and comfortable way of life and economic benefits.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지방예보역량향상 신규예보관 OJT실시(8.3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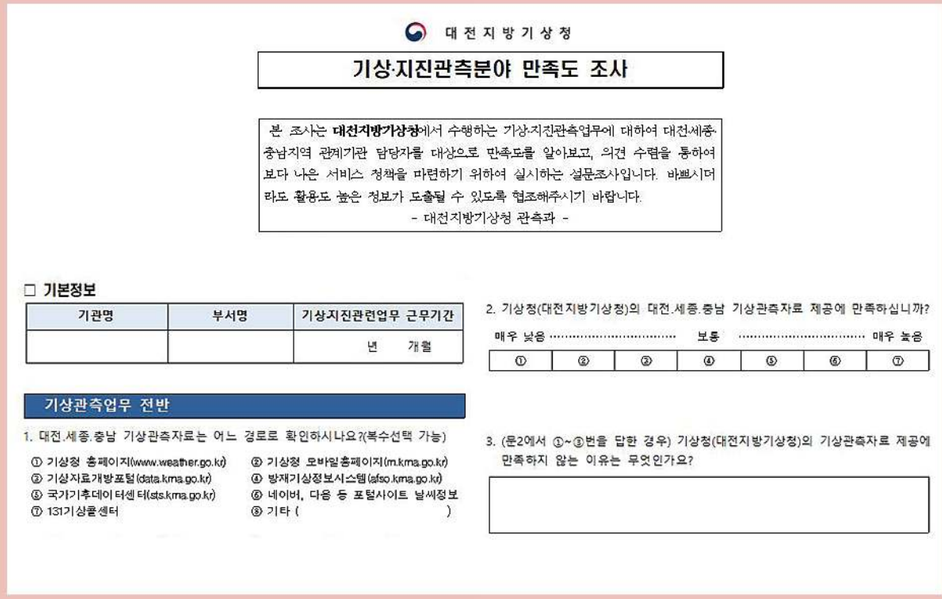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신규예보관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사이동으로 대전청에 온 예보과 직원을 대상으로 호우, 대설, 풍랑, 폭염 등 충남의 예보기술을 전수하고 지형에 의한 국지적 특성에 대해 이론교육을 1주일간 실시, 현장특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신규예보관의 기본역량을 함양시키고 지역 예보기술을 보급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0년 대전지방기상청 뉴스레터 발행(9.4.)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기상기후 이해확산을 위하여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공공기관장 50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당초 기관장 모임과 연계하려던 방식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대체 방안이다. 우리 청의 주요업무와 기후특성 및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아 이해확산 측면의 파급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대 전 지 방 기 상 청

기상·지진관측분야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수행하는 기상·지진관측업무에 대하여 대전·세종·충남지역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알아보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활용도 높은 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

□ 기본정보

기관명	부서명	기상·지진관련업무 근무기간
		년 개월

기상관측업무 전반

1. 대전·세종·충남 기상관측자료는 어느 경로로 확인하시나요?(복수선택 가능)

① 기상청 홈페이지(www.weather.go.kr) ② 기상청 모바일홈페이지(m.kma.go.kr)
③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④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
⑤ 국가기후데이터센터(sts.kma.go.kr) ⑥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날씨정보
⑦ 131기상콜센터 ⑧ 기타 ( )

2. 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의 대전·세종·충남 기상관측자료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문2에서 ①~③번을 답한 경우) 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의 기상관측자료 제공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상 · 지진관측분야 만족도 조사 실시(9.10.~9.18.)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의 기상 · 지진관측분야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측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관할지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측분야 만족도와 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 · 관리에 대한 전반적이 의견을 수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법인 전자우편으로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상 · 지진관측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겨울철 재해취약지역 현장답사(9.21.~10.20.)

대전지방기상청은지역내17개시·군의겨울철재해취약지역(한파,대설)환경 조사 및 지형특성분석을 위해 총 5개 팀을 구성하여 현장답사를 실시 하였다. 한파 취약지역은 최근 10년간 수산생물저수온피해 발생이 있었던 가로림만 · 근소만(서산, 태안 등)일대의 양식장으로 전복 및 우럭 등의 폐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현장답사 하였고, 대설 피해는 특수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장 많았고 충남내륙의 17개 시군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방재기상소통워트숍 개최(9.22.)

대전지방기상청은 관계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방재기상 소통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영상 회의로 운영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록적인 장마와 우리나라에 연이어 영향을 준 태풍 등 지난 여름철 기상특성분석을 시작으로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 분리 결과 분석, 폭염 · 한파 영향예보 개선 및 서비스 소개 등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방재담당자들과 겨울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워크숍 및 정보사용자 협의회(2차) 개최(9.23.)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도심지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대전시와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시 지능형 예 · 경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추진하였다. 수위측정계, CCTV, 재난방송설비 등의 공동활용을 통해 집중호우 감시와 신속한 조기 판단, 그리고 재난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기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청)-대전(청) 협력 세미나(10.13.)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도심지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대전시와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시 지능형 예 · 경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추진하였다. 수위측정계, CCTV, 재난방송설비 등의 공동활용을 통해 집중호우 감시와 신속한 조기 판단, 그리고 재난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점검(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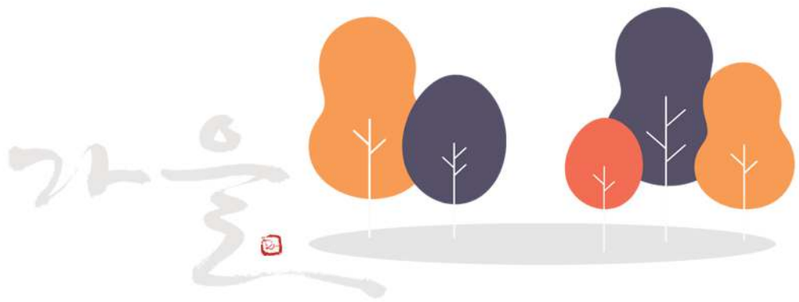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산업기술원 및 유지보수 업체 등 총 19명이 격렬비열도를 입도하여 기상관측장비, 미세먼지측정기 등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서해기지 친환경 에너지 설치 방법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현장에서 협의하였다. 노후화된 전력 배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레이더식 파랑계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대체 방안을 검토하였다. 차년도에도 서해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지형효과 공동연구 '차령2020' 합동세미나 개최(10.22.)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위험기상에 대한 지형효과 공동연구 '차령2020'의 최종 합동세미나를 10월 2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차령2020'은 충청남도만의 국지적인 위험 및 특이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차령산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로 대전지방기상청을 중심으로 차령산맥 일대의 특별집중관측을 20회(6.24.~7.14.) 실시하고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수치모의 실험 연구를 지원하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와 집중관측자료 시각화를 지원해주는 국립기상 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세 기관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함께 연구하고 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착수보고회 개최(10.23.)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3일 내 · 외빈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 전시 · 체험시설을 제작 · 설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건립중인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 레인룸, 안개의 길 등 관람객의 참여 및 체험 중심의 놀이형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기상과학관으로 구축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브런치 기후 카페 6기」 4 · 5차 미션 운영(10.25.)

기후변화 이해확산의 대표 프로그램인 '브런치 기후 카페 6기'가 10월 25일 5차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알기쉬운 기후변화 팝업북 활동(4차), 온라인 골든벨 퀴즈 참여(5차) 등 학생뿐만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으로 변경 모집 덕분에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 충남지역의 학부모들 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모두 30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4명의 활동우수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전달하였다.

대전 · 세종 · 충남 영향태풍 분석집 발간(10.27.)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10년(2010~2019년)동안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에 피해를 준 태풍의 이동경로별 기상상태 및 피해내역을 분석하여 향후 태풍의 영향이 예상될 때 태풍 예 · 특보생산 및 방재업무수행에 활용하고자 대전 · 세종 · 충남 영향 태풍 분석집(2010~2019)를 제작하였다. 이번 태풍 분석집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 향상과 영향예보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태풍분석집을 발간하였다.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3차 세미나 개최(10.28.)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8일에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올해부터 예보과에서는 대전 · 세종 · 남에 특화된 기상예 · 특보 기술의 전수를 위해 기상현상별 표준교재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지난 1, 2차에 이어 표준교재의 구성과 효과적 내용전달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세종특별자치시 기상특성분석」보고서 발간(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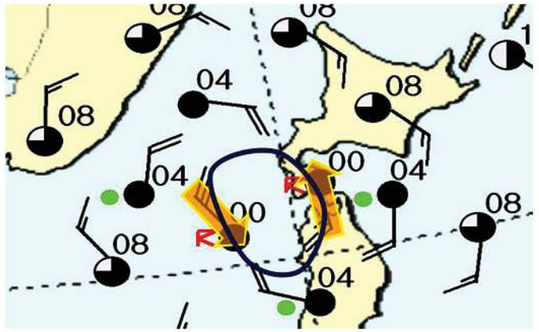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2015년 발간했던 '세종특별자치시 기상특성 분석집'에 최신 기후경향과 분석자료를 추가한「세종특별자치시 기상특성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개발 및 기상기후변화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특별자치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기상서비스 제공과 세종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과제평가 및 최종보고회, 정보사용자 협의회 3차(11.2.)

2020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인 '대전 · 세종 · 충남 도로교통 안전지원 융합서비스' 사업의 과제 평가 및 최종보고회, 정보사용자협의회 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 되었으며 교통사고자료와 기상자료의 새로운 빅데이터 구축으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현재 시스템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서버에 설치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내부직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반기 전문가 초청 관측기술 세미나(11.5.)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안정적인 적설관측업무 수행과 관측기술 향상을 위해 ㈜엠솔 하지수 팀장을 초청해 레이저식 적설계 센서 및 국내외 현황, 적설계 구성 및 관측 원리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적설관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융기현상, 바람, 표면온도 등)에 대한 토의를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준수하여 참석자 전원 체온측정,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하였고, 세미나 전후 실내 소독을 실시하였다.



2020년 예보관 직업 체험「커리어멘토」(11.10.)

대전지방기상청은 2020년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프로그램을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아 운영하였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였다가 지난 11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개하였다. 강사와 학생 사이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교실에서 기상청 업무 및 진로소개, 일기도 그리기 체험 등의 강의를 대전대덕중학교 1학년 30여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가을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 교실」 운영 (11.16.)

충남대학교 생활교실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취소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학생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대도시 내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에 소외 될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나만의 기후변화 우산 꾸미기' 교구를 선보였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양한 색깔로 꾸미기를 해보면서 우산을 쓸 때마다 기후변화에 대해 자연스레 떠올려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관측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지도점검(11.17.)

대전지방기상청은 홍성기상대를 대상으로 관측 · 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점검을 하였다. 관측분야에서는 관측장비 장애 처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6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정보보호분야에서는 정보보안 관련 중요사항을 교육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및 단말기 보안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지상 · 해양기상관측장비 운영 간담회(11.19.)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지역에 지상 ·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관측장비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위해 지상 · 해양 기상관측장비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산기상관측소 관측환경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올해 유지보수 수행결과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였다. 역무대행기관 및 유지보수 수행업체와의 소통 강화로 기상관측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0년도 관 · 학 · 연 기상기술교류 세미나(11.24.)

대전지방기상청은 11월 24일에 관 · 학 · 연 기상기술교류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예보기술 노하우와 전문기상기술의 교류, 기상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기상위성센터,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와 함께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여름철 강수 특성, 겨울철 대비 대설 특성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충남 서해 연안 해상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11.16.~11.23.)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서해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안전과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관계기관(대산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청남도청 해양수산구, 수협중앙회 태안 · 보령어업정보통신국)과 업무협약을 체결(7.31.)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협약 안건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 도출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20년 대전지방기상청이 추진한 해양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내년도 추진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2021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0년 주니어닥터」 우수 참여기관 선정(11.26.)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7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주니어닥터」에 참여하여 우수참여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주니어닥터 행사 참여에 특별히 박훈 대전지방기상청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교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응한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영상 등을 새롭게 선보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 September

9. 3. 9월 월별 일최대순간풍속 극값(순위) 경신
금산: 1위 17.1㎧, 홍성: 1위 21.3㎧
9월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극값(순위) 경신
금산: 1위 17.1㎧, 홍성: 1위 21.3㎧, 부여: 4위 15.7㎧, 천안: 5위 16.3㎧

9. 4. 코스모스 개화(작년대비 6일 빠름, 평년대비 3일 늦음)

9. 15. 코스모스 만발(작년대비 2일 빠름)

10 October

10. 15. 계룡산 단풍 시작(작년대비 2일 빠름, 평년대비 2일 빠름)

10. 26. 계룡산 단풍 절정(작년대비 2일 빠름, 평년대비 1일 빠름)

10. 27. 은행나무 단풍 시작(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7일 늦음)

10. 30. 단풍나무 단풍 시작(작년대비 2일 늦음, 평년대비 7일 늦음)
첫 서리 관측(작년대비 9일 빠름, 평년대비 6일 늦음)

11 November

11. 3. 은행나무 단풍 절정(작년대비 5일 빠름, 평년대비 5일 늦음)

11. 10. 단풍나무 단풍 절정(작년대비 3일 빠름, 평년대비 8일 늦음)

11. 18. 11월 중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2.6℃, 보령: 1위 18.5℃, 홍성: 1위 13.0℃
11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2.6℃, 보령: 1위 18.5℃, 홍성: 1위 13.0℃

※홍성은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입니다. (정규관측 개시일: 2017. 11. 01.)
※세종은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입니다. (정규관측 개시일: 2020. 04. 01.)

22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와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x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3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 · 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 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0. 11.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세종(239)
2. AWS(40소)
   세천(643), 문화(642), 장동(648),세종전의(629), 세종연서(611), 세종금남(496), 세종고운(494)
   계룡산(659), 계룡(636), 논산(615), 연무(644), 양화(635), 서천(614), 춘장대(646)
   홍성죽도(610), 대천항(657), 서부(645), 홍북(608), 원효봉(694), 태안(627), 외연도(669)
   정산(691), 호도(578),근흥(607), 만리포(658), 옹도(667), 신평(637), 안도(666), 삽시도(609)
   대산(606), 당진(616), 청양(618), 송악(493), 아산(634),예산(628), 성거(617),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북격렬비도(229)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 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